



‘광양 별빛 야경투어’ 호응 속 확대 운영키로

오는 24일 당초 인원보다 3배인 120명 모집

광양시가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광양 별빛 야경투어’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과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야경 투어는 광양와인동굴과 구봉산 전망대,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를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1회당 사진 예약을 받은 40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2회를 운영한 결과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움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앞둔 24일에는 당초 40명에서 3배인 120명까지 모집인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날 확대운영에 따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발지를 당초 중마관광안내소 1곳에서 총 3곳으로 확대되며, 광양터미널에서는 오후 3시와 20분, 순천역과 중마관광안내소에서는 각각 오후 3시로 변경해 출발하게 된다.

특히, 오는 14일 오후 7시 KBC 광주방송 TV 블로그 토크쇼에서 ‘별빛 야경투어’ 코스의 광양와인동굴과 구봉산 전망대, 느랭이골 자연리조트가 소개된다.

인터넷 사전예약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전화예약은 대한고속관광여행사(061-

761-2000)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예매 없이 현장 탑승도 할 수 있으나 잔여좌석에 한해 가능하므로 가급적 예약을 추천하고 있다.

버스 이용 요금은 성인 3,000원, 경로·학생 2,000원, 장애인·미취학 아동은 1,000원이며, 와인동굴 입장료 3,000원과 느랭이골 입장료 5,000원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김광수 관광과장은 “소중한 가족·연인과 함께 별해는 밤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투어에 시민들의 관심과 큰 호응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야경투어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멋진 야경을 감상하고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종민 기자

회순군, 문해 교육 수강 어르신 작품 전시 ‘눈길’

군청 현관 및 행복민원실서 ‘작은 시화전’ 개최



성인문해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회순군에 따르면 11일부터 15일까지 군청 현관과 행복민원실 로비에서 문해학습자의 ‘작은 시화전’을 개최한다.

“시를 그림으로 배움을 담다”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이 글을 몰라 겪은 서울과 삶의 애환을 시화, 편지 등으로 표현한 작품 42점이 전시된다.

구충곤 회순군수는 11일 군청 현

관에서 열린 개막식 인사말에서 “어르신들이 배우지 못한 것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일뿐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며 “내년부터는 문해교육을 비싼 농번기를 제외한 1월부터 연중 운영해 배움의 즐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화전에서 대상격인 감동글상에 임신여(76세, 동면 대입리) 어르신, 글빛누리상에 이연임(76세, 이서면 보월리) 어르신이 각각 수상했다.

이모 어르신(이서면 보월마을)은 “내 작품이 전시되어 뿌듯하고 사진 찍어 손주들에게 자랑해야겠다”며 기뻐했다.

회순군은 지난 2013년부터 성인문해 교육을 시작해 올해 2개 마을에서 26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회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2017년 전국 지역복지사업 평가 대상 ‘2관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



통합사례관리사 및 방문간호사 배치로 주민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인 1 나눔계좌 갖기’ 운동을 통한 수익금 일부를 민관협력 지역복지특화사업으로 사용하는 등 복지사업마다 발굴 및 지원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부문에서는 실험가능성, 지역적 창의성, 참여적 과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했다. 구석구석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관·학이 협력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및 저예산 주민 주도적 지역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복지행정상 합동 시상식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결과’ 부문 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민·관·학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도시임을 입증하고, 2년 연속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900만원을 받았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2016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및 서비스 제공’ 분야 평가를 통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순천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룡면 등 19개 면·동에

나주시, 포크콘서트 공연 개최

내일 나주문화예술회관

80~90년대 포크 음악으로 큰 인기를 구가했던 그룹 ‘동물원’과 ‘여행스케치’가 오는 14일 나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나주시는 동물원과 여행스케이치의 포크콘서트 ‘동물원에 여행가자’를 14일, 오후 7시부터 나주문

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그룹은 대표곡인 ‘날 사랑하겠어’, ‘거리에서’, ‘호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별이 진다네’, ‘산다는 건 다 그런게 아니겠니’ 등 80·90년대 주옥같은 명곡들을 선보인다.

나주=김종민 기자

순천시 ‘꿈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마을여행’ 참가자 모집

수능수험자·대학생·아르바이트생·취업준비생 등 대상

순천시가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꿈 찾기 프로그램인 ‘꿈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마을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순천시에 거주·생활하는 19~39세 청년으로 올해 수능 수험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등이며, 오는 14일 까지 구글 독스(www.google.com/forms/d/1Pv9gDRPDG8R2)로 신청하면 된다.

마을여행은 청년들에게 많은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18일과 20일, 2회로 나눠 운영한다.

이번 아름다운 마을여행에서는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직업심리 및 선호도 검사와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한 인문학 강연 그리고 마을주민이 함께 일군 마을공동체 사례와 두부 및 도넛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내년 초 개관되는 청년센터 프로그램 참가 우선권 부여 및 청년활동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순천=김종민 기자

광양시, 경전선 폐선부지 경관숲으로 탈바꿈한다

2019년까지 6만 그루 나무 식재·산책과 여가생활 공간 조성



광양시에 있는 경전선 폐선부지가 도심 속 경관숲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경전선 폐선부지 3km 구간에 10여 억원을 투입해 경관숲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전선 복선에 의해 구 광양역사와 철도가 폐선됨에 따라 부지를 활용한 주민 친화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견이 제

시때 추진됐다.

경관숲 조성사업은 폐자원으로 활용될 위험에 놓인 폐철도를 생태와 녹지공간으로 재정비해 시민들이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다.

또 IF스퀘어 광양점과 운전면허시험장, 도립미술관의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소통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힐링 도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6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우선, 12월까지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된 ‘동일터널~운전면허시험장’

과 ‘덕례사거리~광양정례식장’ 구간 하단부에 홍가시나무, 황금시철, 꽃잔디 등을 식재해 계절감을 한층 느낄 수 있는 길고 넓은 길로 조성한다.

이어, 내년에는 ‘운전면허시험장~덕례사거리’ 구간으로 도립미술관을 거쳐 유당공원 인동숲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푸조나무를 중심으로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9년도에 추진 예정인 ‘광양정례식장~도립미술관’ 구간은 국비를 확보해 진행할 예정이다.

배경수 녹지관리팀장은 “이번 경관숲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광양을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양의 명품숲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종민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